

2014년도 문화재위원회

제2차 동산분과위원회 회의록

- ▣ 회의일시 : 2014. 3. 13 (목) 14:00
- ▣ 장 소 : 덕수궁 강당
- ▣ 출석위원 : 박문열(위원장), 김명규, 김영원, 김재열,
박은순, 안귀숙, 이주형, 이해준, 선주선,
조선미, 최성은, 최응천(이상 12명)
- ▣ 심의내용 및 의결사항 : 이하 자료와 같음

목 차

【심의사항】 1건

<국내외문화재 긴급매입을 위한 국외경매 응찰>

- | | | |
|---|---------------------------------|------|
| 1 | 외국 경매소(미국 크리스티) 출품 우리 문화재 긴급 매입 | (공개) |
|---|---------------------------------|------|

【검토사항】 1건

<국가지정문화재(보물) 지정예고>

- | | | |
|---|--------------------------|------|
| 1 | 전주류씨 함벽당 종손가 소장 현금 및 어은보 | (공개) |
|---|--------------------------|------|

【보고사항】 1건

- | | | |
|---|------------------------------------------------------|------|
| 1 | 국보 제285호 ‘울주 대곡리 반구대 암각화’ 주변 ‘가변형 임시 물막이’ 설치 심의경과 보고 | (공개) |
|---|------------------------------------------------------|------|

심 의 사 항

【심의사항】

I. 국내외문화재 긴급매입을 위한 국외경매 응찰

안건번호 동산 2014-02-001

1. 외국 경매소(미국 크리스티) 출품 우리 문화재 긴급 매입

가. 심의사항

2014년 3월 미국 크리스티 경매회사(Christie's) 주관으로 뉴욕시 록펠러 플라자에서 개최되는 한국유물 경매에 「묘법연화경 제3권」, 「곽분양행락도」 등 환수 가치가 있는 유물 2점이 출품될 예정이어서 국외소재 문화재재단을 통해 문화재보호기금을 재원으로 이를 구입하고자 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문화재보호기금을 재원으로 외국 경매에 출품된 국외문화재를 구입하기 위해서는 「국내외 소재 중요 문화재의 긴급매입에 관한 지침」에 따라 문화재위원회의 매입 여부 등 검토가 필요함

다. 주요내용

- 경매 개요
 - 경매일자 : (1차) 2014. 3. 18(화) / (2차) 3. 20(목)
 - 경매장소 : 미국 크리스티 (뉴욕 록펠러플라자)
 - 경매대행 : 국외소재문화재재단 (이사장 : 안휘준)
 - 소요예산 : 352백만원 (문화재보호기금 / 수수료, 배송료 포함)

매입대상 유물					경매 입찰가		
명 칭	품목 번호	수량	크기	제작 시기	경매사 추정가	적정 낙찰가	응찰 한도액
묘법연화경 제3권 (妙法蓮華經 第3卷)	1618	1점	-	여말 선초	131~196백만원	150백만원	180백만원
곽분양행락도 (郭汾陽行樂圖)	792	1점	128× 385cm	19세기	38~44백만원	80백만원	96백만원

※ 한도액 : 적정 낙찰가의 120% / 수수료 : 한도액의 25% / 배송료 7백만원

○ 추진 경과

- 경매 도록 입수(국외소재문화재재단, '14.2.18)
- 전문가 1차 평가 ('14.2.18~2.19)
 - 크리스티(Christie's) 경매 출품 우리 문화재 152건 분석
 - 안휘준(국외소재문화재재단 이사장), 권희경(가톨릭대 명예교수), 김리나(홍익대 명예교수), 김삼대자(전 국립민속박물관 과장), 김영원(전 국립문화재연구소장) 등 참여
- 전문가 2차 평가 ('14.3.3)
 - 구입대상 유물(2점)에 대한 가치, 적정 낙찰가 등 평가
 - 박상국(한국문화유산연구원장), 조인수(한국예술종합학교 교수), 이태호(명지대 교수), 김경미(문화재청), 차미애(국외소재문화재재단) 등 참여

<전문가 의견>

묘법연화경 제3권 (妙法蓮華經 第3卷)	○ 고려사경의 전통을 따른 조선 초기 사경으로 희귀성이 있어 환수가치가 있다.
곽분양행락도 (郭汾陽行樂圖)	○ 19세기 궁중회화로 보존상태가 좋지만, 다수의 작품이 국내·외에 소장되어 있어 희귀성은 떨어지나 환수가치는 있다. ○ 국내 시장에서 유통되어도 좋을 것으로 판단된다.

라. 의결사항

- 원안가결 : 긴급매입 응찰

검 토 사 항

【검토사항】

I. 국가지정문화재(보물) 지정 예고

안건번호 동산 2014-02-002

1. 전주류씨 함벽당 종손가 소장 현금 및 어은보 (全州柳氏 涵碧堂 宗孫家 所藏 玄琴 및 漁隱譜)

가. 검토사항

‘전주류씨 함벽당 종손가 소장 현금 및 어은보’의 보물 지정 여부를 부의 하오니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경상북도지사로부터 ‘전주류씨 함벽당 종손가 소장 현금 및 어은보’에 대한 국가지정문화재(보물) 지정신청(’12.01.13)이 있어 관계전문가의 조사(’14.1.14)를 실시하였음.
- 위 사안에 대해 본 위원회에서 국가지정문화재(보물)로 지정가치가 있다고 검토되면 지정예고(30일간)하려는 것임.

다. 주요내용

- 지정현황 : 경상북도 유형문화재 제314호(’99. 12.30)
- 명 칭 : 전주류씨 함벽당 종손가 소장 현금 및 어은보
(全州柳氏 涵碧堂 宗孫家 所藏 玄琴 및 漁隱譜)
- 소유자(관리자) : 류기운(한국국학진흥원)
- 소재지 : 경상북도 안동시 서후면 광평2리 1252번지
- 수 량 : 현금 1점, 어은보 1책
- 규 격 : 현금 길이 160.0cm 폭 19.0cm, 어은보 가로 22.5cm, 세로 32.9cm
- 재 질 : 현금 나무(오동나무, 밤나무), 어은보 저지

- 형 식 : 어은보 필사본
- 제작연대 : 현금 1726년, 어은보 1779년
- 제 작 자 : 미상

라. 조사자 검토 의견

○ 문화재위원 (지정 가치 없음)

현금(류홍원의 거문고, 襄陽琴이라고도 함)은 악기의 유래와 제작시기 등이 상세하게 밝혀진 점은 주목되나, 이 악기와 시기가 비슷한 악기들은 대부분 지방자치단체의 문화재 또는 민속자료 등으로 지정되어 있다. 현재 거문고로 보물에 지정된 것은 조선 전기의 악기인 김일손의 거문고가 유일하다. 양양금의 문화재적 가치가 김일손 거문고와 비교될 수 있는지는 알 수 없으나, 다른 악기들과 비슷한 중요성을 지닌 것으로 보아 현재와 같이 시도문화재로 지정되어 보존·관리되는 것이 격에 맞는다고 판단되며, 보물로까지 지정할 필요는 없다고 여겨진다.

다만 한국의 선비문화를 대표하는 악기인 거문고 중 이미 지정된 악기를 포함하여 전국에 산재한 역사적·문화적 가치가 중요한 옛 거문고들을 대상으로 일괄 조사를 거쳐 추가 지정여부 등의 문제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 같은 연구가 조속히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

어은보(창랑보)는 18세기 후반 거문고 풍류음악을 풍부하게 수록하고 있는 거문고 합자보(合字譜)와 한글 육보(肉譜)를 병기한 악보로서 그 음악사료적 가치가 인정된다 할 것이다. 그러나 이 악보를 국가지정문화재 ‘보물’로 지정하는 문제는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

현전 고악보 중 국가지정의 문화재로는 『금합자보』(1572, 현 간송미술관 소장)와 『대악후보』(1735년, 국립국악원 소장)가 있는데, 『금합자보』는 최초의 민간 악보라는 점에서, 『대악후보』는 영조때 세조대의 음악자료를 집대성한 관찬악보라는 점에서 그 가치와 비중이 매우 높다 할 수 있다. 그러나 『창랑보』는 그 내용의 상당부분이 타 악보의 전사본이며, 비록 몇몇 수록악곡의 학술적 중요성이 인정되지만, 이를 전후하는 시기의 다양한 악보들이 함께 검토되지 않은 상황에서 『창랑보』만을 보물로 지정하기에는 아쉬움이 있다 할 것이다. 따라서 『창랑보』는 현재와 같이 경상북도 지정 문화재로 보존·관리하는 것이 합당해 보인다.

향후 고악보 전반에 걸친 조사와 검토를 거쳐 우리 음악문화사에서 중요한 악보들의 국가문화재 지정여부를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작업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

○ 관계전문가 (지정 가치 있음)

현금은 원형에 거의 가깝게 잘 보존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재료의 출처, 제작 연대 등에 관한 기록 등이 상세하게 소개되어 있다. 어은보는 영산회상, 가곡 등에 관한 자료들이 수록되어 있다. 이 악보에 수록된 악곡을 통해 대엽(가곡 계통)음악과 영산회상의 시대사적 발전과정을 알 수 있다. 특히 영산회상(현행 상령산)과 영산회상 갑탄(현행 중령산)은 우리 음악 중 가장 중요한 레퍼토리인 영산회상의 파생과정 연구에 유일무이할 뿐만 아니라 조선시대 음악문화연구에 가장 귀중한 자료로 평가된다.

따라서 현금 및 어은보 2종을 국가지정문화재로 지정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판단된다. 또한 현금 및 어은보를 따로따로 2건으로 하여 지정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판단된다.

○ 관계전문가 (지정 가치 있음)

현금의 제작 연대가 명확하며, 보존상태도 양호하다. 봉미의 모양이 다른 거문고에서 볼 수 없는 특이한 모양이다. 16개의 패는 각이 뚜렷하여 그 모양이 선비의 기상을 보여주는 듯하다. 현재의 거문고는 산조를 연주하기 위하여 패의 간격을 넓혀 만들고 있기 때문에 조선시대 거문고와 패 간격이 다르다. 따라서 패 간격의 원형을 잘 간직하고 있는 점에서 조선시대 사용하였던 음률 등을 연구하기 위하여 이 악기의 패 간격 수치 등은 매우 중요한 자료를 제시할 수 있다.

거문고의 규격 변화 등에서 이 악기의 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며, 다음은 본인이 문화재연구소의 의뢰를 받아 작성 중인 거문고산조 원고 중 일부를 참고로 제시한다.

악학궤범의 거문고, 정악거문고(일송금·스미소니언박물관 거문고·피바디에섹스박물관 거문고·송사금)와 산조거문고(금현금·일청금)의 패를 비교해 보면, 패의 높이는 큰 변화가 없으나, 악학궤범 당시보다 정악거문고의 패 너비는 넓어졌고, 산조거문고는 정악거문고보다 약 1cm 이상 넓어졌다. 정악거문고의 울림통은 너비가 15.9~21.5cm이면서 패 너비는 약 9cm정도이고, 산조거문고의 울림통은 너비가 19.5~21.4cm이면서 패 너비는 약 10.5cm이다. 거문고의 울림통 너비에 관계없이 산조거문고의 패 너비가 넓어진 것이다. 이와 같은 변화는 정악 연주에서 요성·전성·퇴성의 폭이 작은데 비해, 산조 연주에서 요성·전성·퇴성은 폭이 크고 격렬하기 때문에 생긴 것이다.

표 11. 정악거문고와 산조거문고의 패

		1패 높이	1패 너비	울림통 너비
정악거문고	악학궤범	2촌 4푼	2촌 7푼	6촌 9푼(상변)
	류경시 거문고	5.8cm	9.8cm	21.1cm~18.7cm
	일송금	6.6cm	9.5cm	16.5cm
	스미소니언 거문고	6.98cm	9.2cm	17cm
	피바디에섹스 거문고	7.6cm	9.2cm	18.5cm
	송사금	미상	9cm	21.2cm
산조거문고	금현금	6.5cm	10.5cm	21.4cm
	일청금	7cm	10.7cm	19.5cm

악학궤범에는 안쪽 밑변의 길이가 2촌 2푼이고, 높이가 1촌 8푼으로 낮았으나, 정악거문고에서 높이 4.5cm, 산조거문고에서 높이 5.5cm로 점점 높아지고 있다.

어은보의 가장 큰 특징은 <영산회상 갑탄>이며, 이 악곡은 홍선례의 연구논문 <어은보의 영산회상 갑탄>에서 현재의 영산회상 중영산에 해당되는 악곡임이 밝혀졌다. 이 악보가 <낭용신보>라 불리는 악보를 필사한 것으로 보는 것이 국악학계의 설이지만, 다음의 점에서 이 악보의 가치를 평가할 수 있다.

1. 수록 악곡에 있어 <영산회상 갑탄>이 <낭용신보>에 없으나, <창랑보>에만 있다. 영산회상 갑탄이 수록된 악보는 <창랑보>가 유일하며, 이후 <유예지>에는 세령산(현 중령산), 영산회상 이층제지(현 세령산) 등 후속 악곡이 수록되어 있어, 중령산의 발생 시기를 알 수 있고, 발생 이유가 ‘周而復始’하던 관습에서 나온 것임을 알 수 있다.

2. 수록 악곡 중 보허자 계통 악곡으로 추정되는 <본환입>, <소환입>, <대환입> 등이 수록되어 있는데, 이 악곡들은 <낭용신보>에 수록되지 않은 악곡이며, 특히 <대환입>은 거문고의 대현으로만 연주하였던 매우 특이한 곡으로, <창랑보>가 유일하다. <대환입>은 <유예지>의 <대현환입>과 다른 악곡으로 현재까지 연구되지 않은 악곡이다. 또한 <소환입>도 여타 악보에 수록된 악곡과 달라 향후 보허자 계통 악곡의 파생관계를 연구하는데 매우 중요한 자료가 될 것으로 본다.

3. 거문고의 구음에 있어 <낭용신보>의 거문고 구음 체계와 <창랑보>의 거문고 구음 체계가 완전하게 일치하지 않는다. 거문고 구음 체계로 보았을 때는 <창랑보>의 성립 연대가 <낭용신보>보다 앞선 것으로 볼 수도 있다.

4. 영산회상의 장 구분에 있어 <창랑보>이전의 악보에는 장 구분이 없고, <유예지> 이후에 장 구분이 있어, 장 구분법이 생기기 이전의 악보이다.

5. <창랑보>는 <낭옹신보>를 필사한 것이 아니라, 김성기의 다른 저본을 필사한 것으로 판단한다.

○ 문화재전문위원 (지정 가치 없음)

『어은보』는 영산회상갑탄을 유일하게 수록하고 있고, 시조음악의 발전과정도 알 수 있다는 점에서 국악계를 비롯한 관련 분야에서 그 가치를 인정받는 자료임은 분명하다. 그러나 이 책은 영산회상갑탄을 제외한다면 『낭옹신보』나 그 계통본을 베낀 18세기 후기의 전사본에 해당된다.

이 책의 국가문화재 지정을 위해서는 먼저 생각할 점이 있다. 곧 이 책의 저본 격인 18세기 전기에 완성된 『낭옹신보』가 아직 국가문화재로 지정되지 않은 점이다. 또 이 책은 정확하지 않은 책을 저본을 삼은 탓인지 우계삭대엽(羽界數大葉)의 끝난 뒤에 “대체로 이해되지 않는 곳이 많은데 (저본이) 잘못 베낀 것이 아닌가 한다. 어떻게 선본을 입수하여 고증해야 하나?(多有未解處, 或是傳寫之誤, 何以得善本, 考證也?)”라는 필사자의 목서가 있다. 곧 이 책에 수록된 악보는 완전하지 않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점에서 볼 때, 『어은보』는 문화재적 가치는 적지 않으나 국가문화재로 지정하기에는 시기상조이거나 미흡한 점이 있다고 판단된다.

마. 의결사항

○ 부결

조사보고서

□ 문화재위원

현금은 현 소장자 류기운의 10대조 류경시(柳敬時, 1666~1737, 양양군수·순천부사 역임)가 1717년 양양 낙산사 이화정(梨花亭)의 오동나무를 얻어 그 9년후인 1726년에 제작한 거문고로, 보존상태가 비교적 양호하며, 제작 연대와 경위가 밝혀진 거문고라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현 소장자 류기운의 8대조 강포 류홍원(柳弘源, 1716~1781)의 문집 및 현존 거문고 뒷면에 아래의 내용이 기록되어 있어 제작 시기를 알려주고 있다.

材則此邑北隅洛山寺 梨花亭 所立桐也
未知其 機百年而人皆以琴稱之
歲丁酉仲春爲風所拔故余始得
雍正四季丙午十二月日自造傳之無限

현 소장처에는 거문고를 제작한 류경시의 손자인 류홍원(柳弘源, 1716~1781)이 필사한 것으로 보이는 거문고 고악보가 함께 소장되어 있으며, 동 거문고의 배면에 음각된 내용이 류홍원의 문집에 실려 전하는 점으로 보아 이 거문고를 즐겨 연주하였던 인물은 류홍원으로 보인다.

신청서에 의하면 이 거문고의 제작 경위와 형태는 다음과 같다.

현 소장자 류기운의 10대조 함벽당(涵碧堂) 류경시(柳敬時, 1666~1737)는 조선후기의 문신으로 1694년(숙종 20) 별시에서 유학(幼學)으로 병과에 급제하고, 양양군수와 순천부사를 지냈다.

이 거문고는 그가 양양부사를 역임할 때, 당시 낙산사 이화정에 있던 오동나무를 얻어 1726년에 제작 완성하였다.

거문고(玄琴)의 오동나무 뒷면 밤 나무판에는 소장자 류기운의 8대조 강포 류홍원(柳弘源, 1716~1781)이 쓴 다음과 같은 글이 실려 있어 이 거문고의 오랜 역사를 증명해 주고 있다. 이 기록은 류홍원의 문집에서도 확인된다.

材則此邑北隅洛山寺 梨花亭 所立桐也
未知其 機百年而人皆以琴稱之
歲丁酉仲春爲風所拔故余始得
雍正四季丙午十二月日自造傳之無限

이러한 기록을 통하여 이 거문고의 재료 구입 연유와 제작 시기 등을 명확하게 알 수 있다는 점은 이 악기의 문화재로서의 가치를 높여주고 있다. 현재 이 악기는 길이 160cm 폭 19cm 몸체와 16괘가 온전히 남아 있으며, 돌괘 1개가 제작 당시의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부들과 줄은 최근에 보수하였고, 괘 1개는 보수과정에서 잘 못 붙여져 있다.

현재 문화재로 지정된 거문고는 다음과 같은 것이 있다.

- 보물 제957호 김일손 거문고(대구 수성구 청호로 321)

- 중요민속문화재 제119-3호 거문고(병와)(경북 영천시)
- 경상북도 시도유형문화재 제241호 희령군 어사금(경북 예천군 용문면 구계리 243)
- 경상북도 시도유형문화재 제314호 강포 유흥원의 현금(경북 안동시 서후면 광평2리 1252)
- 충청북도 시도민속문화재 제9호 자양금(紫陽琴)(충북 제천시 봉양읍 공전리 475)
- 충청남도 문화재자료 제192호 수덕사유물(거문고)(충남 예산군 덕산면 사천리 20 수덕사)

이 중 이번에 조사한 류홍원의 거문고(襄陽琴이라고도 함)는 악기의 유래와 제작시기 등이 상세하게 밝혀진 점은 주목되나, 이 악기와 시기가 비슷한 악기들은 대부분 지방자치단체의 문화재 또는 민속자료 등으로 지정되어 있다. 현재 거문고로 보물에 지정된 것은 조선 전기의 악기인 김일손의 거문고가 유일하다. 양양금의 문화재적 가치가 김일손 거문고와 비교될 수 있는지는 알 수 없으나, 다른 악기들과 비슷한 중요성을 지닌 것으로 보아 현재와 같이 시도문화재로 지정되어 보존·관리되는 것이 격에 맞는다고 판단되며, 보물로까지 지정할 필요는 없다고 여겨진다.

다만 한국의 선비문화를 대표하는 악기인 거문고 중 이미 지정된 악기를 포함하여 전국에 산재한 역사적·문화적 가치가 중요한 옛 거문고들을 대상으로 일괄 조사를 거쳐 추가 지정여부 등의 문제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 같은 연구가 조속히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

어은보는 18세기 후반에 경상도 안동지역에서 필사된 거문고 악보(합자보+한글육보)로 대엽조 악곡과 영산회상·여민락·보허자계 악곡 등을 다양하게 수록한 악보이다.

이 악보 수록곡 중 영산회상 갑탄은 국악의 중요한 연주곡목인 영산회상의 역사적 변천과정의 초기 모습을 살필 수 있는 귀중한 자료이나, 나머지 많은 부분은 『낭용신보』(1728, 현 해남 녹우당 소장)를 전사한 것이다.

그동안 국악학계에 『어은보(漁隱譜)』라는 명칭으로 알려져 있던 『창랑보(滄浪譜)』는 그 표지의 책명을 따라 『창랑보』로 명명하는 것이 옳다. 『창랑보』는 17~8세기 거문고 명인인 김성기의 음악을 수록하고 있는 거문고 고악보이다. 김성기는 그 이름을 金聖基, 金聖器, 金聖起 등으로 적고 있으며, 아호를 浪翁·漁翁·漁隱 등으로 다양하게 쓰고 있는데, ‘滄浪’ 역시 그의 아호가 아닐까 추측된다.

김성기는 16~7세기를 대표하는 거문고 명인으로 『양금신보(梁琴新譜)』를 편찬한 바 있는 양덕수(梁德壽)와 비교되는 거문고 명인이다. 병와 이형상은 『악학습령』에서 양덕수의 음악을 ‘고조(古調)’, 김성기의 음악을 ‘시조(時調)’라 칭한바 있다.

이형상에 의하여 양덕수와 비견되는 것으로 평가된 김성기의 음악은 ‘당대의 음악’이라는 의미로 ‘시조[時調]’로 불려진 것이다. 김성기의 음악을 기록한 악보로는 『낭옹신보(浪翁新譜)』(해남 녹우당 소장)가 있는데, 이 악보는 김성기의 사후에 그의 제자 중 종친인 남원군(南原君) 이설(李櫛) 등이 스승으로부터 전수받은 가락을 기록하여 1728년 가을에 만든 악보이다.

『창랑보』의 내용 대부분은 위의 『낭옹신보』를 전사한 것이다. 『창랑보』의 수록 내용은 하단표와 같다.

위 『창랑보』의 *註에 의하여 이 악보가 모종의 악보를 전사한 것임을 알 수 있는데, 악보 앞부분의 언급 등으로 보아 김성기의 음악을 수록한 『낭옹신보』를 전사한 것임이 이미 밝혀진 바 있다. 위 <표>에서 (7)~(39)의 굵게 표기된 내용이 『낭옹신보』를 전사한 것으로 추측되는 부분인데, (7)~(22)까지는 『낭옹신보』와 대조를 통하여 전사 관계가 확인되었지만, (23)~(39)까지의 내용은 원본인 『낭옹신보』에서 낙장(落張)되어 확인이 불가능하다.

<p>(1) 狹調音 城中大柚 中大葉(一旨, 二旨, 三旨, 四旨, 五旨) (2) 又 (一, 二, 三, 四, 五) (3) 狹調 數大葉 第一(一, 二, 三, 中餘, 四, 五, 大, 余) (4) 又 (一, 二, 三, 中餘, 四, 五, 大, 余) (5) 界面調 調音 (一, 二, 三, 四) (6) 界面調 短歌 (一, 二, 三, 四, 五, 大)</p> <hr/> <p>(7) 平調 北殿 俗稱 後庭花 金聲起(一, 二, 三, 余) 余註: 此以下皆上同</p> <p>(8) 平調 中大葉(一, 二, 三, 中, 四, 五, 大) (9) 又 (一, 二, 三, 大) 三旨註: 此下與上中余同</p> <hr/> <p>(10) 又 (一, 二, 三, 四, 五, 大) 三旨註: 此下與上中余同 大餘註: 余皆下同</p> <hr/> <p>(11) 平調 數大葉 短歌也(一, 二, 三, 中, 四, 五, 大) (12) 平調 數大葉 第二(一, 二)一旨 此下與第一旨同 二指註: 二旨以下與上同 二指註: 二旨以下與上同</p> <hr/> <p>(13) 平調 數大葉 第三(一, 二, 三, 四, 五, 余) 三指註: 中余上同</p> <hr/> <p>(14) 平調 數大葉 第四 調: 初旨亦然此下皆同 第四初旨亦如此後皆上同</p>	<p>(15) 平界面調 北殿(一, 二, 三, 余) (16) 平界 中大葉 (*第一)(一, 二, 三, 中, 四, 五, 大) (17) 平界 中大葉 第二(一, 二, 三, 大) (18) 平界 中大葉 第三(一, 二, 大) (19) 平界 數大葉 第一(一, 二, 三, 中, 四, 五, 大) (20) 又 第二(一, 二, 三, 五, 大) 中余四旨上同 (21) 又 第三(一, 二, 三, 四, 五, 余) 二旨註: 此下本板兩青 中余上同 (22) 又 第四(一, 二, 三, 大) 三旨註: 余上同 大余註: 此下與上同</p> <hr/> <p>(23) 狹調 後庭花 世稱 北殿 (一, 二, 三, 余) (24) 狹調 中大葉 第一 (一, 二, 三, 中, 四, 五, 大) (25) 又 (*第二)(一, 二, 三, 大) 三旨註: 此下與初同 (26) 又 (*第三)(一, 二, 三, 四, 五, 大) 三旨註: 中余與初同 大余註: 此下與上同</p> <hr/> <p>(27) 狹調 數大葉(*第一)(一, 二, 三, 中, 四, 五, 大) (28) 又 (*第二)(一, 二, 三, 中, 四, 五, 大) (29) 狹調 樂時調(一, 二, 三, 中, 四, 五, 大) (30) 狹調 (從)心曲 無歌時所彈 (一, 二, 三) 北下與初旨中大葉同</p>	<p>(31) 狹界面調 北殿(*第一)(一, 二, 三, 余) (32) 又 (*第一)(初) 余與上同 (33) 狹界 中大葉(*第一)(一, 二, 三, 中, 四, 五, 大) (34) 又 (*第二)(一) 此下與上同 (35) 又 (*第三)(一, 二, 三, 四, 五) 三旨: 此下同初 五旨: 此下與初同 (36) 狹界 數大葉(*第一)(一, 二, 三, 中, 四, 五, 余) (37) 又 (*第二)(一, 二) (38) 又 (*第三)(一, 二) (39) 又 (*第四)(一, 二, 三, 中, 四) 此下與初旨同</p> <p>*註: 諸調行腔緩促之節 絃 按打之法 多有未解處 惑是傳寫之誤 何以得善本考證也</p> <hr/> <p>(40) 狹調步虛詞八篇別曲(一旨~八旨) (41) 本選入 (42) 小選入 (43) 大選入 (44) 靈山會上 (45) 靈山會上甲彈 (46) 狹調與民樂七章</p> <p>**註: 己亥 仲夏 寄寓故里村家時 揮汗 臚出</p>
---------------------------------------------------------------------------------------------------------------------------------------------------------------------------------------------------------------------------------------------------------------------------------------------------------------------------------------------------------------------------------------------------------------------------------------------------------------------------------------------------------------------------------------------------------------------------------------------------------------------------------------------------------------------------------------------------------------	--------------------------------------------------------------------------------------------------------------------------------------------------------------------------------------------------------------------------------------------------------------------------------------------------------------------------------------------------------------------------------------------------------------------------------------------------------------------------------------------------------------------------------------------------------------------------------------------------------------------------------------------------------------------------------------------------------------------------------------------	---------------------------------------------------------------------------------------------------------------------------------------------------------------------------------------------------------------------------------------------------------------------------------------------------------------------------------------------------------------------------------------------------------------------------------------------------------------------------------------------------------------------------------------------------------------------------

그러나 원본에 낙장 되고 『창랑보』에만 실려 있다고 하여 이 부분이 지니는 학술적인 가치가 매우 높은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신증금보』·『연대 소장 금보』·『한금신보』·『운몽금보』·『신작금보』 등 17C 말과 18C 초의 금보 대부분이 이들 악곡들을 수록하고 있기 때문이다.

정작 『창랑보』의 음악사적 가치는 (40)번 이후의 내용이라 하겠다. 특히 ‘(45)靈山會上甲彈’은 현행 <영산회상>의 형성과정에서 초기의 변천과정을 보여주는 중요한 악곡이다. 주지하다시피 현행 영산회상은 9곡으로 구성된 모음곡이다. 그러나 조선 전기 『악학궤범』에는 단 한 곡만 존재하였고, 이 곡이 역사적 변천을 거치며 다양한 악곡으로 파생된 것이다. 그 첫 파생곡이 바로 ‘甲彈’이며, 이 곡을 실고 있는 악보는 『창랑보』가 유일하다.

1779년 류홍원에 의하여 편찬된 『창랑보』의 수록 내용 중, 50년 전의 악보인 『낭용신보』를 전사한 악곡들은 당대에 이미 ‘고조(古調)’로 인식되었을 것이다. 반

면에 새로이 추가된 (40)~(46)의 악곡은 18세기 후기인 당대의 음악이었다. 따라서 이들 새로운 악곡은 ‘시조(時調)’로 인식되었을 것이다. 『창랑보』는 고조가 내용의 대부분을 이루지만, 당대 음악인 ‘시조’를 함께 수록하였다는 점을 강조하기 위하여 표지에 ‘시조합부(時調合部)’라 표기한 것으로 보인다.

『창랑보』는 18세기 후반 거문고 풍류음악을 풍부하게 수록하고 있는 거문고 합자보(合字譜)와 한글 육보(肉譜)를 병기한 악보로서 그 음악사료적 가치가 인정된다 할 것이다. 그러나 이 악보를 국가지정문화재 ‘보물’로 지정하는 문제는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

현전 고악보 중 국가지정의 문화재로는 『금합자보』(1572, 현 간송미술관 소장)와 『대악후보』(1735년, 국립국악원 소장)가 있는데, 『금합자보』는 최초의 민간 악보라는 점에서, 『대악후보』는 영조때 세조대의 음악자료를 집대성한 관찬악보라는 점에서 그 가치와 비중이 매우 높다 할 수 있다. 그러나 『창랑보』는 그 내용의 상당부분이 타 악보의 전사본이며, 비록 몇몇 수록악곡의 학술적 중요성이 인정되지만, 이를 전후하는 시기의 다양한 악보들이 함께 검토되지 않은 상황에서 『창랑보』만을 보물로 지정하기에는 아쉬움이 있다 할 것이다. 따라서 『창랑보』는 현재와 같이 경상북도 지정 문화재로 보존·관리하는 것이 합당해 보인다.

향후 고악보 전반에 걸친 조사와 검토를 거쳐 우리 음악문화사에서 중요한 악보들의 국가문화재 지정여부를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작업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

□ 관계전문가

전체적으로 보관상태가 양호. 1999. 12. 30에 경상북도 유형문화재 제314호로 지정되어 보존·관리되고 있으며, 현재 한국국학진흥원에 위탁 보관 중.

거문고(현금)는 涵碧堂 柳敬時(1666~1737)가 양양군수 재직시 낙산사 이화정에 서 있던 오동나무를 얻어 1726년에 제작 완성되었으며, 『漁隱譜』는 1779년에 류경시의 손자인 江浦 柳弘源(1716~1781)에 의해 筆寫되었다.

거문고(1726년)는 제작 연대가 분명하고, 재료의 출처와 사연(history), 제작연대 등에 관한 기록 등이 상세하게 소개되어 있다.

현존상태는 거문고 앞판 오동나무와 뒷판 밤나무의 상태가 그대로 보존되어 있고 양면이 분리된 상태에서 앞면을 뒤집어 보면 안쪽 2개와 꺾 16개가 원형대로 남아있고 들꺾는 1개가 있다. 좌단부분이 19cm, 봉미 부분이 2cm이며 전체길이는 160cm이다.

어은보(1779년)에는 영산회상, 가곡 등에 관한 자료들이 수록되어 있다. 여기에 보이는 시조의 악곡을 통해 대엽(가곡 계통)음악의 시대사적 발전과정을 알 수 있다.

특히 영산회상(현행 상령산)과 영산회상 갑탄(현행 중령산)은 우리 음악 중 가장 중요한 레퍼토리인 영산회상의 파생과정 연구에 유일무이할 뿐만 아니라 조선시대 음악문화 연구에 가장 귀중한 자료로 평가한다.

수량 : 1책, 51장 101면(앞표지 3장, 뒷표지 2장 포함)

크기 : 가로 22.5cm, 세로 32.9cm

표제 : ‘滄浪譜’<*이외에도 ‘滄浪者 漁隱老子也’ ‘(平)羽調合部’ 등이 적혀 있음>

기보법은 ‘한글 거문고 육보’와 ‘거문고 합자보’를 병기(併記)하였다.

□ 관계전문가

류경시의 현금은 오동나무를 양양 낙산사에서 얻었기 때문에 각종 도록에서 <양양금(襄陽琴)>이라 소개되어 있다. 이 악기는 몸통(울림통), 꺾 16개, 안족 2개, 들꺾 1개가 남아 있다. 최근에 꺾는 본래 붙어 있던 자리에 순서대로 붙였으나, 제16꺾는 방향이 거꾸로 붙어 있다. 안족과 들꺾는 각각 1개, 5개를 보완하여 새로운 줄을 엮어 한국국학진흥원에서 보관하고 있다.

거문고의 길이는 162cm(부들 포함), 너비는 넓은 쪽(제16꺾 부분)이 21.1cm, 좁은 쪽(봉미 부분)이 18.7cm, 높이는 14.8cm(들꺾~제1꺾 포함)이다. 복판은 불룩하고, 울림통을 측면에서 보았을 때, 좌단 쪽과 봉미 쪽은 얇고, 중앙의 제1꺾 부분은 두텁다. 좌단 쪽의 용구는 3개가 있고, 봉미(鳳尾)는 부들과 부들 사이를 솟아나게 만들었는데, 봉황의 꼬리를 상징한 것으로 추정된다.

16개의 꺾는 안쪽에 묵서로 ‘一·二·三…十六’의 숫자를 써 놓았으며, 떨어져 있던 것을 최근에 붙어있던 자리에 그대로 붙였다고 하는데, 수선한 악기장의 실수로 제16꺾는 안쪽과 바깥쪽을 바꾸어 붙였다. 꺾의 각진 모서리는 선비의 기상을 보여주는 듯하다. 제1꺾의 높이는 5.8cm, 너비는 9.8cm이고, 제1-2꺾의 거리는 6.5cm이다.

제1-16꺾의 거리는 56.8cm, 현침과 제16꺾의 거리는 20cm(꺾의 안쪽 기준)이고, 안족의 높이는 약 6cm(새것으로 보이며 지정을 위해 세밀한 조사가 필요함)이다. 본래의 줄은 삭아서 새로운 줄을 엮었다. 들꺾는 8각형으로 깎은 것 2개만 원래의 것이고 나머지는 새것으로 채워져 있다. 들꺾의 높이는 약 2.8cm이다.

뒤판에 봉미를 위로하여 상단에 ‘증금옹(贈琴翁)’을, 하단에 ‘제금복(題琴腹)’을 초서로 새겼다. 이 두 편의 칠언절구는 양사언이 소장하였던 ‘봉래금’에¹⁾ 새겨져

1) 신광완이 소장하였다가 현재는 소재 불명이다. 蓬萊琴 楊蓬萊士彥琴 故名。… 亦爲永城之藏，後轉而之他。이

있던 것이며, 이 거문고(양양금)는 ‘봉래금’을 본떠 동일한 시를 새겼다.²⁾ 또 이 두 편의 시는 류홍원이 만든 창랑보(滄浪譜, 일명 어은보)의 제2면과 뒷 표지에도 기재되어있다.

<증금옹(贈琴翁)>

錄綺琴伯牙心 녹기금³⁾타는 백아의 마음을⁴⁾
 鍾子始知音 종자기가 그 음악에서 처음 알아듣고,
 一鼓復一吟 (백아가) 한 번 타니 (종자기가) 한 번 읊조리네.
 冷冷虛籟起遙岑 덩덩 거문고소리는 먼 산까지 일고
 江月娟娟江水深 강달처럼 아름답고 강물처럼 깊도다.

<제금복(題琴腹)>

玲瓏石上桐 영롱한 석상동 금을
 一鼓一吟五[三]十春 한번 타고 한번 읊조리니 오십년이네.
 當時[年]鍾子棄我去⁵⁾ 그 옛날 종자기가 나를 떠나 버리니
 玉軫金徽生素塵 옥 돌괘 금 휘⁶⁾에는 흰 먼지만 이네
 陽春白雪廣陵散 양춘곡, 백설곡,⁷⁾ 광릉산⁸⁾을
 倘寄蓬萊山水人 급히 봉래산수인⁹⁾에게 보내 주려나.

『五洲衍文長箋散稿』人事篇, 樂器, 東琴類辨證說.

- 2) 봉래(蓬萊) 양사언(楊士彦, 1517~1584)이 지은 ‘증금옹(贈琴翁)’과 ‘제금복(題琴腹)’은 『봉래시집』 권1(칠언절구)에 실려 있다. ‘증금옹’은 양사언이 장인인 금옹(琴翁) 김유복(金胤福)에게 지어 드린 것으로, 경기도 포천시 창수면 오가리 금수정(金水亭) 아래 영평천 바위[尊岩, 술두루미바위]에 양사언의 초서체로 새겨져 있다. (琴翁. 錦水亭主人也. 刻此詩於尊岩). 경기도 포천시 백운산 정상을 알리는 표지석 뒷면에도 새겨져 있다. ‘제금복’은 강릉의 선비 집에서 얻은 것이라 한다.(得之江陵士人家). 양사언은 이 두 편의 시를 자신의 거문고인 ‘봉래금’에 새긴 후, ‘지락가(至樂歌)’라 불렀으며, 봉래금의 시를 세상에서 모각(模刻)한 것이 많다고 하였다.(世多模刻). 『湛軒書』 내집4권, 補遺, 蓬萊琴事績.
- 3) 녹기금은 중국에 있었던 4대 명금(名琴) 중 하나다. 4대 명금은 제환공의 호종금(號鍾琴), 초장공의 요량금(繞梁琴), 사마상여의 녹기금(綠綺琴), 채옹의 초미금(焦尾琴)인데, 녹기금은 한나라의 사마상여(司馬相如)가 양왕으로부터 받았다고 한다. 사마상여는 녹기금 소리로 청두에서 막 과부가 된 부잣집 딸 탁문군(卓文君)을 얻었다.
- 4) 백아가 산을 떠올리며 연주를 하면, 종자기는 ‘태산이 아른 거리네.’라고 읊조리고, 백아가 강물을 생각하며 연주를 하면, 종자기는 ‘장강이 출렁이네.’라고 읊조렸다. 백아가 빗소리에 맞춰 연주하니, 종자기는 ‘비가 구슬프다.’고 답했고, 다음 곡을 연주하니 종자기는 ‘산이 무너지네.’라고 응답했다.
- 5) 양사언의 원문은 ‘三十春’과 ‘當年’이며, 이 거문고에는 ‘五十春’과 ‘當時’로 새겨졌다. 『蓬萊詩集』 卷之一, 七言絕句.
- 6) 『악서(樂書)』 악도론(樂圖論)에 여수(麗水)의 금으로 휘를 막고, 곤륜산(崑崙山)의 옥으로 돌괘를 만들었다고 한다.(古者造琴之法 … 徽以麗水之金, 軫以崑山之玉) 백아는 종자기가 죽자 줄을 끊어버렸으므로 금에는 휘와 돌괘만 남았으니, 여기서는 녹기금을 뜻한다.
- 7) 양춘곡과 백설곡은 초나라의 가곡이다.
- 8) 죽림칠현 중 한 사람인 혜강(嵇康)이 형장에서 마지막으로 탄 금곡(琴曲) 이름이다. 실전되었다가 명 태조 주원장의 17째 아들 주권(朱權)이 고대의 금곡(琴曲)을 모아 『신기비보(神奇秘譜)』를 편찬하였고, 여기에 ‘광릉산’이 수록되었다. 오늘날 연주되고 있는 광릉산은 후대인들이 복원한 곡으로 보인다.
- 9) 백아가 금을 배울 때 처음 3년 동안 진척이 없자 성련이 동해(東海) 봉래산(蓬萊山)에 보내 바닷물이 출렁거리는 소리와 새들이 지저귀는 소리를 듣게 했는데, 감정이 움직이면 마음도 느끼는 바가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 연주 실력이 크게 발전했다. 『중국역대인명사전』(이희문화사, 2010)

악기의 유래에 대하여 류홍원(柳弘源, 1716~1781)의 “文集卷之一” 다음과 같은 글이 실려 있어 악기 제작 연대를 알 수 있다.

材則此邑北隅洛山寺 梨花亭 所立桐也 未知其機百年而人皆以琴稱之 歲丁酉仲春爲風所拔故余始得 雍正四季丙午十二月日自造傳之無限

이 기록에 의하면 1717년(丁酉) 2월(仲春)에 바람에 넘어진 오동나무를 얻었고, 1726년(雍正四季丙午) 12월에 악기를 만들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함벽당 류경시(柳敬時, 1666-1747)가 소장한 거문고였으며, 류홍원이 소장한 이후 후손인 전주류씨 함벽당의 종손가(涵碧堂 宗孫家)에 소장되어 왔다.

어은보는 국악학계에 처음 소개한 이동복 교수(경북대학교 예술대학 국악과)에 의하여 <어은보>로 소개되었고, 그 이후 어은보라는 명칭으로 불린다. 이 악보를 실사한 결과 표지의 본래 명칭인 <창랑보>라 부르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이며, 함께 조사에 임한 이동복 교수도 동의하였다.

창랑보의 앞표지(뒷면)와 뒷표지에 상기 거문고의 뒷판에 새긴 <증금용>과 <제금복>이 기록되었다.

악보의 수록 내용은 다음과 같다.

- (1) 時調 羽調音 城中大柚 中大葉(一地, 二地, 三地, 四地, 五地)
- (2) 又 (一, 二, 三, 四, 五)
- (3) 羽調 數大葉 第一(一, 二, 三, 中餘, 四, 五, 大. 余)
- (4) 又 (一, 二, 三, 中餘, 四, 五, 大. 余)
- (5) 界面調 調音 (一, 二, 三, 四)
- (6) 界面調 短歌 (一, 二, 三, 四, 五, 大)
- (7) 漁隱譜 平調 北殿
俗稱 後庭花 金聲起(一, 二, 三, 余)
余註：此以下皆上同
- (8) 平調 中大葉(一, 二, 三, 中, 四, 五, 大)
- (9) 又 (一, 二, 三, 大)
三旨註：此下與上中余同
- (10) 又 (一, 二, 三, 四, 五, 大)

- 三旨註：此下與上中余同
 大餘註：余皆下同
- (11) 平調 數大葉 短歌也(一, 二, 三, 中, 四, 五, 大)
- (12) 平調 數大葉 第二(一, 二)一旨
 此下與第一旨同
 二指註 二旨以下與上同
 二指註 二旨以下與上同
- (13) 平調 數大葉 第三(一, 二, 三, 四, 五, 余)
 三指註：中余上同
- (14) 平調 數大葉 第四
 調：初旨亦然此下皆同
 第四初旨亦如此後皆上同
- (15) 平界面調 北殿(一, 二, 三, 余)
- (16) 平界 中大葉 (※第一)(一, 二, 三, 中, 四, 五, 大)
- (17) 平界 中大葉 第二(一, 二, 三, 大)
- (18) 平界 中大葉 第三(一, 二, 大)
- (19) 平界 數大葉 第一(一, 二, 三, 中, 四, 五, 大)
- (20) 又 第二(一, 二, 三, 五, 大)
 中余四旨上同
- (21) 又 第三(一, 二, 三, 四, 五, 余)
 二旨註：此下本板兩青
 中余上同
- (22) 又 第四(一, 二, 三, 大)
 三旨註：余上同
 大余註：此下與上同
- (23) 羽調 後庭花 世稱 北殿 (一, 二, 三, 余)
- (24) 羽調 中大葉 第一(一, 二, 三, 中, 四, 五, 大)
- (25) 又 (※第二)(一, 二, 三, 大)
 三旨註：此下與初同
- (26) 又 (※第三)(一, 二, 三, 四, 五, 大)
 三旨註：中余與初同
 大余註：此下與上同
- (27) 羽調 數大葉(※第一)(一, 二, 三, 中, 四, 五, 大)
- (28) 又 (※第二)(一, 二, 三, 中, 四, 五, 大)

- (29) 羽調 樂時調(一, 二, 三, 中, 四, 五, 大)
- (30) 羽調 (從)心曲 無歌時所彈 (一, 二, 三)
北下與初旨中大葉同
- (31) 羽界面調 北殿(※第一)(一, 二, 三, 余)
- (32) 又 (※第一)(初)
余與上同
- (33) 羽界 中大葉(※第一)(一, 二, 三, 中, 四, 五, 大)
- (34) 又 (※第二)(一)
此下與上同
- (35) 又 (※第三)(一, 二, 三, 四, 五)
三旨：此下同初
五旨：此下與初同
- (36) 羽界 數大葉(※第一)(一, 二, 三, 中, 四, 五, 余)
- (37) 又 (※第二)(一, 二)
- (38) 又 (※第三)(一, 二)
- (39) 又 (※第四)(一, 二, 三, 中, 四)
此下與初旨同

註：諸調行腔緩促之節 絃叫按打之法 多有未解處 惑是傳寫之誤 何以得善本考證也

- (40) 羽調 步虛子 八篇 別曲(一旨, 二旨, 三旨, 四旨, 五旨, 六旨, 七旨, 八旨)
- (41) 本還入 (※章別區分 韻音)
- (42) 小還入 (※章別區分 韻音)
- (43) 大還入 小絃大絃之別也
- (44) 靈山會上 (...周而復始...)
- (45) 靈山會上 甲彈 (...還入...周而復始...)
- (46) 羽調 與民樂 七章 (初章, 二章, 三章, 四章, 五章, 六章, 七章)
二章註：此下移入四章
三章註：此下二入五章
四章註：此下二章還入
五章註：此下三章還入
六章註：此下四章還入
七章註：此下引入三章

己亥 仲夏 寄寓故里村家時 揮干瞻出

○ 目錄(※原本의 目錄)

· 時尚羽調

調音二 · 數大葉二

· 界面調

調隱譜 平調 北殿一 · 中大葉三

樂時調一 · 數大葉二 · 中大葉三 · 北殿一 · 羽調 數大葉四 · 中大葉三
北殿一

平界面調

數大葉三, 從心曲一(一章, 二章, 三章, 四章)

羽界面調

北殿一 · 中大葉三 · 數大葉四

羽調別曲

步虛子 · 本還入 · 小還入 · 大還入

靈山會上 · 靈山甲彈

與民樂 合四十四篇 (目錄終)

(47) 舉調 (...余音)

(48) 羽調 長調音

- 目次終 -

악보의 후반부 우조 여민락 7장 끝에 ‘己亥年夏寄寓故里村家時揮汗膽出’로 기록되어 있어, 1779년(정조3년)으로 추정하는 것이 국악학계의 입장이다. 홍선례의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어은보의 영산회상 갑탄>에서도 논의되었다. 류홍원이 필사한 이후 후손인 전주류씨 함벽당의 종손가(涵碧堂 宗孫家)에 소장되어 왔다.

□ 문화재전문위원

거문고(玄琴)는 소장자 류기운의 10대조인 함벽당(涵碧當) 류경시(柳敬時, 1666~1737)가 양양부사로 재직할 때인 1726년에 제작된 것이고, 『어은보』는 소장자의 8대조인 강포(江浦) 류홍원(柳弘源, 1716~1781)이 정조 3년(1779)에 필사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것은 이 책의 우조여민락(羽調與民樂) 끝부분에 “己亥(1779)仲夏寄寓故里村家時揮汗膽出”이라고 묵서(墨書)되어 있기 때문이다.

『어은보(1책)』는 모두 51장 101면이며, 4침의 가철본이다. 숙종 · 영조 때의

가인(歌人)으로 거문고 · 통소 · 비파의 명인이었던 창랑(滄浪) 김성기(金聲起 또는 金聖器)가 전한 곡들을 모은 것이다. 곧 그가 죽은 뒤인 영조 4년(1728)에 남원군(南原君) 등 제자들이 『낭옹신보(浪翁新譜)』를 엮었고, 이 책은 『낭옹신보』나 그 계통본을 저본으로 필사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김성기의 자는 자호(子湖), 자호(子豪), 대재(大哉) 등이고, 호는 낭옹(浪翁), 어옹(漁翁), 어은(漁隱), 조은(釣隱), 강호객(江湖客) 등이다.

이 악보에 수록된 곡은 조음(調音:다스름) · 중대엽(中大葉) · 삭대엽(數大葉) 등의 가곡과 보허사(步虛詞) · 본환입(本還入) · 소환입(小還入) · 대환입(大還入) · 영산회상(靈山會相) 그리고 영산회상갑탄(靈山會相甲彈) 등이 수록되어 있다. 『어은보』는 정확한 음높이를 적어놓은 것과는 달리 정확한 음길이를 알 수 없다는 한계는 없지 않다. 그러나 영산회상갑탄이 유일하게 수록되어 있고, 시조(時調)에는 명칭이 부기되어 있어서 시조음악의 발전과정도 알 수 있다는 점에서 큰 가치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귀중한 국악자료로 인정받아 거문고와 함께 1999년에 경상북도 유형문화재 제314호로 지정되었다.

다만 『어은보』라는 지정명칭은 재고할 필요가 있다. 곧 이 책의 앞표지에는 “時調合部 滄浪者漁隱 老子也 滄浪譜”, 표제지(標題紙)에는 “時調附 滄浪譜 漁隱譜” 등이 묵서되어 있다. 그러므로 『어은보』라는 서명은 표제지의 묵서에서 비롯된 것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앞표지의 『滄浪譜』는 표지에 묵서된 것이 아니라 제첨(題簽)이다. 곧 서명의 하나이다. 그러나 나머지 글은 이 책의 특성(時調合部)이나 창랑을 설명(滄浪者, 漁隱老子也)하는 내용이다.

또 후대에 필사된 것으로 보이는 표제지에 『滄浪譜』와 『漁隱譜』가 병기되어 있는 점, 이 책속에 하나의 작품으로 「어은보」(俗稱後庭花 金聲起)가 수록되어 있는 점 등으로 보아 이 책의 서명은 『어은보』라기 보다는 『창랑보』라고 일컫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더욱이 최초로 『어은보』라는 서명으로 이 책을 학계에 공개한 이동복 교수(경북대)도 현재는 『창랑보』라는 서명이 합당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하였다.

그러므로 이 책의 서명은 국가문화재로의 지정여부에 관계없이 향후 『창랑보』로 지정명칭을 변경할 필요가 있겠다.(현재 한국국학진흥원의 유교문화관 기록자료 상세정보(<http://multi.koreastudy.or.kr>)나 유교넷(<http://www.ugyo.net/>)에는 『창랑보』로 소개되고 있음)

<참고문헌>

金景培·裴賢淑, 「국가문화재 지정신청 조서보고서」, 경상북도, 2012.

서인화, 「어은보」, 『영산회상과 영산회상갑탄의 4대강과 8대강』, 한국음악사
학보, 20집 1호, 1998.

최선아, 「‘漁隱譜’의 체제와 편찬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 음악학
과 국악이론전공, 2003.

보고 사항

【보고사항】

안건번호 동산 2014-02-003

1. 국보 제285호 ‘울주 대곡리 반구대암각화’ 주변 ‘가변형 임시 물막이’ 설치 심의경과 보고

가. 보고사항

국보 제285호 ‘울주 대곡리 반구대 암각화’ 주변에 ‘가변형 임시 물막이’를 설치하는 사항에 대해 심의하고 그 경과를 보고합니다.

나. 보고사유

- 건축문화재분과위원회 의결(‘14.02.20)에 따라 국보 제285호 ‘울주 대곡리 반구대 암각화’ 주변 암각화 침수방지를 위한 ‘가변형 임시 물막이’ 설치사업에 대해 심의한 경과를 보고하는 사항임

다. 주요내용

(1) 심의 개요

- 심의 분과 : 건축문화재분과위원회
 - 근거 : 문화재위원회 규정(대통령령 제22594호) 제5조(분과위원회와 분장사항) 제2호에 따라 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유형문화재 중 건조물에 관한 사항을 심의
- 심의 일시 : 2014. 02. 20(목) / 13:30~
- 심의 결과 : 보류

- ▷ 가변형 임시 물막이 설치 안건은 세계유산분과와 합동분과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의하되, 관련 분과(동산, 천기, 매장, 사적) 선 보고 후 의견수렴하여 반영
- ▷ 합동분과위원회 심의 전 다음 사항에 대해 보완제출토록 함
 - 가변형 임시 물막이 존치기한에 대한 구체적 목표치 제시
 - 사전 검증실험에 대한 전문 검증평가단 구성·운영계획 제시

※ 기존 현상변경 심의경과(건축문화재분과, 3회) ※ 상세내용 붙임참조

심의일자	심의결과	주요내용
'08.07.17	보류	반구대 암각화가 훼손되지 않도록 근본적인 보존방안 마련 시까지 우선적으로 사연댐 수위를 낮추고 댐·지질·지리·수문학 등 관계전문가로 구성된 상설자문기구를 구성하여 자문을 받아 재검토
'09.06.18	부결	임시제방 설치안은 주변 환경 훼손, 현상변경이 심하여 수용 곤란, 수위를 낮출 것을 촉구. 반구대암각화는 원상태로 주변 환경과 함께 보존되어야 함을 재확인
'11.08.18	부결	반구대 주변의 현상이 변경되어 역사문화 경관훼손이 심함. 댐 수위를 낮추어 반구대암각의 보존이 필요함

(2) 주요 추진경과

- '13.06.16 : 가변형 투명 물막이(카이네틱 댐) 설치추진 협약체결(국무조정실,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재청, 울산광역시)
- '13.07.05 : 가변형 투명 물막이 설치추진 협약이행을 위한 세부합의(문화재청·울산시)
- '13.8.30~12.20 : 반구대 암각화 주변 발굴조사 실시(국립문화재연구소)
 - 고고학적 유구와 유물은 확인되지 않음. 하천 바닥에서 사연댐 이전의 퇴적양상을 파악할 수 있었고, 암반에서 공룡발자국 화석 81점을 발견
 - 발견된 발자국 화석에 대한 기초학술자료(3D 촬영, 맵핑 등) 확보 후 발굴 이전의 상태로 복토하여 보존기로 함('13.12.20 매장문화재분과 보고)
- '13.09.03~12.31 : 가변형 투명 물막이 설치를 위한 기초조사 용역(울산시)
 - (주)선진엔지니어링(대표 함인선) / 625,578,000원(국고보조 7억원)
 - 반구대 암각화 침수 방지를 위한 '가변형 투명 물막이' 설치방안 및 제원 도출
- '13.09.05~12월말 : 기술평가팀 구성 및 운영(국무조정실)

- 4개 분과(건축구조·시공, 수리·수문, 토목·암석, 기계·제어) 11명으로 구성
- 현지조사 2회, 전체회의 4회 및 분과별 회의 수시, 서면 의견 수렴 등 실시
- 기술평가팀 단계별 의견은 기초조사 용역에 반영하여 보완하고, 최종 검토의견 제출(‘제안된 공법은 현재의 기술과 공학으로 구현 가능하며, 기술적 타당성이 있음’)
- ‘14.01.10 : 가변형 투명 물막이 현상변경 허가신청(울산시(울주군)→문화재청)
- ‘14.01.16 : 건축문화재분과 제1차 심의(결과 ‘보류’ → 01.17 자료보완 요청)
 - ① 가칭 ‘가변형 투명 물막이’는 한시적인 시설물이어야 하므로, **한시성을 확보할 수 있는 구체적인 실천계획을 제출할 것**
 - ② 동 건에 대한 안전성 및 시공성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사전 검증계획을 제출할 것**
- ‘14.02.14 : 보완자료 제출(울산시→문화재청)
 - ① 한시성 확보 관련 실천계획
 - ‘가변형 투명 물막이’ 시설의 한시성 확보는 대체수원 확보 시까지 설치·운영
 - 대체수원 확보는 울산광역시 독자추진 불가하여 국토해양부와 국무조정실의 적극적인 협조와 조정 필요
 - * 국토교통부, ‘금년 상반기에 경북·대구권 맑은 물 공급 종합계획 검토 용역 시행 계획이며, 동 용역에서 울산권 맑은 물 공급방안도 포함하여 검토할 계획’(수자원개발과-278, 2014.2.6)
 - ‘가변형 투명 물막이’ 명칭은 ‘가변형 임시 물막이’로 변경
 - ② 안전성 및 시공성 관련 사전 검증계획
 - 실시설계 과정 및 시공 전 단계에서 실물모형을 통한 사전 성능 검증 실시
 - 검증 항목 및 세부계획
 - 암벽·암반 부착부 실물모형 테스트 : 1/5 축소모형을 유사 사이트에 제작 설치하여, 시공성·안전성·차수성능·복원성능 검증
 - 소음·진동 테스트 : 실시설계로 제원 결정된 각종 기계 장치를 설치하여 소음, 진동치 측정→암각화 영향성 검토
 - 기계 구동장치 mock-up 테스트 : 실시설계 후 인양 시스템과 변위조정 시스템을 장착한 모듈 장치를 제작하여 구동성·작동성 검증
 - 투명막 수밀성 테스트 : 실시설계 후 제원, 부재, 디테일대로 부분 모듈을 제작하여 수밀성 검증

- 재료의 물성 테스트 : 제반 재료의 물성 및 친환경성, 암각화 암벽의 화학적 영향 여부 검증
- '14.02.26 : 천연기념물분과 경과보고 완료
- '14.03.12 : 사적분과 경과보고 완료

(3) '가변형 투명 물막이' 사업개요

- 사업위치 : 울산 울주군 언양읍 대곡리 991번지 일원
 - 문화재와 이격거리 : 주요 암각화면으로부터 약 20m, 보호구역 인접(약 5~10m)
- 사업내용
 - 구 조 : 이동식 기초, 조립식 철골조, 폴리카보네이트 막구조
 - 규 모
 - 투명 물막이 : L=55m, W=16~20m, H=16m
 - 임시물막이 설치 : L=100m, W=35m, H=5m
 - 토공량 : 20,000m³(L=100m, W=50m, H=4m) ※ 공사 완료 후 복토
 - 사 업 비 : 104억원 (기초조사비 7, 설계비 9, 공사비 88) / 국비 70%

라. 향후계획

- '14. 2~3월 : 관련 문화재분과 사전보고 및 의견수렴
- '14. 3월 : 동 사업 관련 합동분과위원회 소집·심의
- '14. 3월 이후 : 심의결과에 따라 사업추진

마. 의결사항

- 원안접수

<붙임> 반구대 암각화 차수방안 현상변경 심의경과 상세

	일자	신청내용 및 심의결과
1	'08. 7.17	<p>신청내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 울산광역시장 - 사업내용 : 반구대암각화 보존대책 '터널형 수로 유로변경안' . 암각화 좌우에 제방을 설치하고 외곽으로 수로터널 굴착하여 암각화 보존 . 개착식 수로, 수로터널, 하상굴착, 제방설치, 도로개설 . 사업비 : 515억원 <p>○ 결과 : 보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암각화가 훼손되지 않도록 근본적인 보존방안 마련 시까지 사연댐 수위를 낮추고 댐·지질·지리·수문학 등 전문가 자문기구를 구성하여 재검토 - 2003년 용역결과(1안 : 사연댐 수위조절, 2안 : 유로변경안, 3안 : 차수벽 설치) 와 울산시 제안안(터널형 수로 유로변경안) 그리고 반구대 하류에 물막이댐 1개 소를 설치하고 배수펌프장을 설치하는 안에 대하여는 종합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
2차	'09. 6.18	<p>○ 신청내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청인 : 울산광역시장 - 사업내용 : 반구대암각화 주변 '임시 제방설치' 안 - 사업기간 1년, 200억원 소요, 임시조치 - 사업내용 . 암각화 전면 80m 지점에 길이 300m, 높이 10m이상 임시제방(62m) 설치 . 암각화 전면 길이 300m, 폭 100m 산 절개 후 수로 설치 . 암각화 주변을 해발 약 52.0m 정도로 매립 및 정지 <p>○ 결과 : 부결('09. 5.28일 자문회의 결과에 따라 시행)</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울산시의 임시제방 설치안은 주변 환경 훼손, 현상변경이 심하여 수용 곤란, 수위를 낮출 것을 촉구 - 반구대암각화는 원상태로 주변 환경과 함께 보존되어야 함을 재확인 - 암각화 자체(석재)에 대한 보존처리는 주변 환경이 함께 신중하게 조치되어야만 유효할 것임(지속가능하고도 종합적인 보존방안 마련 필요) - 풍화의 가장 위험적인 요소가 '물' 이므로 우선 댐 수위를 낮추고 후속조치를 해야 할 것임 - 세계유산 등재를 위해서는 주변 환경의 원형복원(회복)이 필요하며, 천전리각석 등을 포함하여 등재 추진 - 암각화의 탁월한 보편적 가치에 대해 세계적으로 조명해야 할 필요가 있음 - 대국민 홍보 강화하여 반구대암각화의 가치에 대한 인식을 재고해야 함.
3차	'11. 8.18	<p>○ 검토대상 방안 : 터널형 유로변경안(울산시), 임시제방 설치안(울산시), 유리벽 설치안(국토해양부)</p> <p>○ 결과 : 부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반구대 주변의 현상이 변경되어 역사문화 경관훼손이 심함. - 댐 수위를 낮추어 반구대암각의 보존이 필요함.